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한국 정교회 선교사들 기념일
성 레온 카타니아의 주교
(제2조 | 조과 복음 2)



영성의 샘터

탕자의 참회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 주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탕자 주일 시기송 ----- 220
- 사도경 : 1고린토 6,12~20 ----

봉독서 418
- 복음경 : 루가 15,11~32 ---- 133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하느님께서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오늘 사도경 중에서)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놀라운 부(富)를 받았다. 우선 생명을 받았고, 그것을 누리며 의미 있게 하고 사랑과 지식으로 가득 채울 능력을 받았다. 이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성령의 은사와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받았다. 나는 하느님 지식을 얻었고, 그 안에서 만물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획득했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는 잃어버렸다. 특별한 '범법 행위들과 죄악들 때문에, 특별히 '죄악 중의 죄악' 다시 말해 하느님을 등지고 그분을 더 이상 사랑하려 하지 않는 죄 때문에, 또 아버지 집의 아름다움보다 '먼 나라'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대사순절' 중에서 [정교회 출판사]

가정이라는 교회

크리스토퍼 무어 신부

평생 변함이 없는 신앙의 불꽃을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붙여줄 수 있을까요?

(2디모테오 1,6 참조)

전

고 기대가 되는 디모테오 사도는 신실한 신앙을 지닌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시는 축복을 받았으며, 바울로 사도는 같은 신앙이 디모테오에게도 있음을 보았습니다(2디모테오 1,5). 이처럼 아이에게 신앙의 불꽃을 붙여줄 가장 큰 능력과 책임을 지닌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학교이고, 병원이며, 교회입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영성을 부모인 여러분에게서 배울 것이며, 따라서 자기 자녀가 옳고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돌보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입니다.”(“작은 교회를 위한 청사진: 정교 가정을 만들기”에서 인용)

부모인 우리에게는 엄청나면서도 쉽지 않은 과제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성인(聖人)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이면서도 꾸준히 성장해가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그리스도교적인 가치와 가르침이 교실 안에서, 또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에 의해서 가르쳐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여름수련회조차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경험이지만 가정이라는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인내와 사랑을 담은 언행으

로 신앙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 자기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젖먹이일 때부터 시작되어 나이에 알맞은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그 중요한 기초는 두 가지로서, 성당에 가는 일과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주일 성찬예배가 적당히 빠져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참여하는 것”임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은 식사 전에 주의 기도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기도서에 있는 기도와 성가를 부르는 것, 함께 성서를 읽는 것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일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단순하게 시작을 하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느님께 간구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덕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의 덕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 자신을 교육시켜 나가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만일 하느님이 우리의 이런 노력을 보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에피파니오스 테오도로뿔로스 수도사제, +1989년 안식



세상에는 슬픔과 불의와 질병과 절망과 실패가 왜 이토록 많이 있나요?
왜? 대체 왜 그런 거죠, 왜?

QA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의 유한한 논리로 이 모든 ‘왜?’에 대한 해답을 이해할 수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이 모든 물음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위해 준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때, 이 모든 ‘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 때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1고린토 13,12)

주간 예배 안내

* 2월 26일 (토)

영혼 토요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추도식

- 쫄리바 준비하세요.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신앙 탐구

영혼 토요일에 대해

교회는 1년에 2번, 영혼 토요일을 정해놓고 부활의 희망을 안고 잠드신 모든 영혼을 추모합니다. '금욕 주일(최후의 심판 주일) 전 토요일'과 '오순절 전 토요일'이 바로 그날이며, 안식한 모든 이를 기억하면서 쫄리바를 만들어 추도식을 거행합니다.

최후의 심판 주일 전 영혼 토요일은 안식한 이들이 두려운 주님의 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추모합니다. 오순절 전 영혼 토요일은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을 맞아 우리와 한 공동체를 이루는 먼저 안식한 이들을 기억하며 추모합니다.

표지 사진 설명



다불산 -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그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마태오 17,2) 주님께서 변모하시어 세 제자가 이해할 만큼 영광을 드러내신 장소인 다불산은 히브리어로 '하르 타볼' 즉, '높은 산'이란 뜻이다. 이스라엘 최대의 곡창지대인 이즈르엘 평야 한쪽에 자리 잡은 해발 588m의 다불산은 나자렛에서 갈릴래아 호수로 가는 길 동남쪽 9.6km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어느 방향에서나 아담하게 보이는 돔 모양의 산세에다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미 5세기경 성 예로니모스 수도자는 '경이롭도록 동글고 높은 산'이라고 극찬했다. 성 엘레니 모후는 326년 다불산 정상에 교회를 건립했고, 그 후 수 세기 동안 교회와 수도원이 계속 세워졌지만 614년 페르시아에 의해 교회가 파괴되고 수도자들이 순교당했다. 지금은 정교회 관할 지역에 1911년 세워진 기념 성당이 있다.

소식

대교구

■ 프리오디온 기간을 잘 지냅니다.

프리오디온 기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과 이어지는 대사순절을 영적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교회 출판사의 '대사순절', '성 에프렘의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권의 영성서적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기간이 되고, 부활절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한국 정교회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

올해부터 한국 정교회의 생일(2월 17일) 다음 주일을 한국 선교를 위해 봉사하셨고, 지금도 봉사하시는 모든 선교사들, 성직자들, 협력자들을 기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 성찬예배 말미에 특별 기도식을 거행합니다.

■ 주일학교 진급 및 새 학년 시작을 위한 기도식

다음 주일(27일), 성찬예배 후 기도식이 거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새로운 학년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신임 성당 운영위원 기도식

오늘 성찬예배 후, 기도식이 거행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어 위원들이 교회 운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